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가는 길 (김소월): 2P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2P
- [02] 절정 (이육사): 4P  
새 (김지하): 4P
- [03] 매미 (나희덕): 6P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6P  
수목 (이태준): 6P
- [04] 눈 오는 지도 (윤동주): 10P  
석문 (조지훈): 10P
- [05] 오랑캐꽃 (이용악): 12P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12P
- [06] 사령 (김수영): 14P  
아마존 수족관 (최승호): 14P  
독락당 (박인로): 14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44p / 해설 47p]

[25051-0021]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연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 회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25051-0022]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의지를 약화하고 있다.
- ③ 화자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 ④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불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5051-0023]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문 어느 집’은 생명력이 부족한 삭막한 현실을 드러낸다.
- ② ‘키 큰 나무’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 ③ ‘죽은 나무뿌리’는 ‘물’이 되어 만날 ‘우리’가 재생시키고자 하는, 생명력을 잃은 존재로 제시된다.
- ④ ‘숯이 된 뼈’는 현재 ‘불’에 의해 고통을 받은 존재로, ‘물’을 외면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⑤ ‘불 꺼지는 소리’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날 때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상적인 상황과 연결된다.

(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칩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萬里)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25051-0024]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에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거나, 시 속에서 의미를 수식하고 변형하기 위한 구조화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음절 수, 음운의 반복이나 동일한 요소(단어, 어절, 문장)의 반복,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표현 형식 등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의미를 생성하거나 변형한다. 병렬이란 반복 중에서 특정한 상황이 짝을 이루거나 행, 시어 등이 대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① (가)의 1, 2연은 시행에 ‘ㄱ’ 음과 ‘ㅎ’ 음이 나타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군.
- ② (가)의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따라오라고’와 ‘따라가자고’의 병렬적 배치는 오락가락하며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③ (가)는 ‘강물’, ‘흐르는 물’, ‘연달아’, ‘흐름디다려’와 같이 유음이나 비음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하고 있군.
- ④ (나)는 1, 2연의 ‘물’이 되어 만나고자 하는 가정적 상황과 3연의 ‘불’을 만나려 하는 현재 상황의 병렬적 배치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대비되는 현실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1, 2연에서는 가정형 연결 어미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우리가 물’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맞이한 이상적 상황을 연결하며 의미를 확장하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149p / 해설 12p]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달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 답새라: 없애고 싶어라.

[25051-0092]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처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교차하며 상황이 변화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첫 연과 마지막 연의 구조를 유사하게 구성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25051-0093]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② 화자가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 ③ 화자가 우러르다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게 한다.
- ④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25051-0094]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대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 민족이나 당대 사람들이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다. 자유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의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인 외적 상황을 전통적인 지사 정신이라는 내적 정신력을 바탕으로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를 들어 절망적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 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북방’과 (나)의 ‘땅’은 비극적인 외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보여 주는 장소이겠군.
- ② (가)의 ‘매운 계절의 채찍’은 화자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외적 요인을, (나)의 ‘뭉인 이 가슴’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린 화자를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하늘’은 절망의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사적 태도를, (나)의 ‘청청한 하늘’은 자유를 잃은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눈 감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 외적 상황을 내적 정신력을 바탕으로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나)의 ‘밤새워 물어뜯어도’는 화자가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에서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서 있는 상황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나)의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는 당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166p / 해설 24p]

(가)

그리하여 ㉠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 날개가, 입이 부서져

[A]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한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등걸을 타고 오른다

[C]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여섯 해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신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등걸을 오르게 된 것일까

[D]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떼 날아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 나희덕, 「매미」 -

(나)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다)

몇 평 안 되는 마당이나마 나무들과 함께 설 수 있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울타리 삼아 둘러 준 십수 주(株)의 앵두나무를  
비롯하여 ㉢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와 모란, 백화(白樺)의

한두 그루들, 이들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다 떠받들어 옹은  
귀한 손님들이다.

우리에게 꽃을 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또 푸른 그늘과 그  
맑은 향기를 주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받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다. 가물면 물을 줌 주는 것이나, 추우면 몇 나무의 밑둥을 짚  
으로 싸 주는 것쯤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과, 그  
맛남과, 그 향기롭고 서늘함에 비겨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어느 친구나 어느 당자인들 우리에게 이  
처럼 주기만 하고 받음이 없음에 태연할 것인가. 자연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가르침은 크다.

나무들은 아직 묵묵히 서 있다. 봄은 아직 몇천 리 밖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나무 아래 가까이 설 때마다 나는 진작부터 봄을  
느낀다. 아무 나무나 한 가지 휘어잡아 보면 그 도톰도툼 땀혀진  
눈들, 하룻밤 세우(細雨)만 내려 주면 하루아침 따스한 햇발만  
쬐여 주면 곧 꽃 피리라는 소근거림이 한 봉지씩 들어 있는 것이  
다.

봄아 어서 오라!

겨울나무 아래를 거닐면 봄이 급하다.

우리 식구들은 앵두가 익을 때마다, 대추와 감을 딸 때마다, 이  
집이라기보다 마당을 우리에게 전하고 간 그전 주인을 생각한다.  
더구나 감나무는 우리가 와서부터 첫 열매가 열린 것이니 그들  
은 나무만 심고 열매는 따지 못한 채 떠난 것이다. 남의 밭에 들  
어 추수하는 미안이 없지 않다. 나는 몇 번이나 불란서 어느 작  
가의 「인도인의 오막살이」라는 작은 이야기 한 편을 생각하였다.  
어떤 학자가 세계를 편답(遍踏)하며 진리를 찾는 이야기인데 필  
경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 한 인  
도인의 오막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오막살이의 주인은 '파이리아'  
라는 인도 최하급의 천족으로서 그의 생활은 문화와 완전히  
절연된 것이었다. 그러나 학자는 이 '파이리아'에게서 어느 고승  
거유(高僧巨儒)에게서도 얻지 못하였던 진리의 한끝 실마리를  
붙들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중에 '파이리아'의 말로 다음과 같은  
뜻의 구절이 아직 기억된다.

……나는 어디서 무슨 열매를 주워 먹든 반드시 그 씨를 흙에  
묻고 읊니다.

그건 그 씨가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 와 따 먹자는 것이 아닙  
니다. 누가 와 따 먹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쉽되, 거룩한 일인가! 우리 마당의 그전 주인도 그 '파  
이리아'와 같이 천의에 순하려 이 마당에 과실 씨를 묻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무튼 그들이, 보기 좋고 맛있고 또 따는 재미  
만도 좋은 여러 과실나무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감은 우리 식구  
들이 길이 잇을 수 없는 은혜다.

그러나 나는 또한 가끔 생각을 달리하여 얼마의 불만을 갖기  
도 한다. 내 과욕인지 모르나 그전 주인들이 작은 나무 여럿을  
심었음을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따 먹는 것은 없더라도 작은 여  
러 나무보다는 큰 한 나무 밑에 거닐어 보고 싶기 때문이다.

나무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 잔가지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열어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라볼 만한 아취(雅趣)를 모름이 아니로되, 그렇게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나무보다는 나무 그것이 나를, 내 집과 마당까지를 폭 덮어 주어 나로 하여금 한 어린아이와 같이 뚱그레진 눈으로, 늘 내 자신의 너무나 작음을 살피며 겸손히 그 밑을 거닐 수 있는 한, 뽕뿌리처럼 높이 솟은 나무가 그리운 것이다.

현인(賢人), 장자(長者)들이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히 큰 나무들이 선 것을 본다. 온양에 이충무공이 사시던 마을에도 그가 활 쏘던 언덕이라는 데 절벽과 같이 흰칠히 솟은 두 채의 은행나무가 반은 고목이 되어 선 것을 보았다. 나는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어느 유품에보다 그 한 쌍 은행나무에 더 반갑고 더 고개가 숙여졌다.

늙기는 하였으되 아직 살기는 한 나무였다. 말이야 있건 없건 충무공과 더불어 한때를 같이한 것으로 아직껏 목숨을 가진 자—그 두 그루의 은행나무뿐이다.

나무는 긴 세월을 보내며 자랄 대로 자랐다. 워낙 선 곳이 언덕이라 여간 팔 힘으로는 풀매를 쳐 그 어느 나무의 상가지도 넘길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높고 우람한 거목이기 때문에 좋았다. 아무리 충무공이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하여도 그 나무가 즐망스런 상나무나 반송(盤松) 따위로 석가산(石假山)의 장식거리나 될 것이었으면 그리 귀할 것 아니었다. 대무인(大武人)의 면목답게 허공에 우뚝 솟기를 산봉우리처럼 하였으니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었다.

다못 한 그루의 나무라도 ㉔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싶다. 입맛을 다시며 낮은 과목 사이에 주춤거리보다는 빈 마음 빈 기쁨으로 오직 청풍이 들고날 뿐인 휘영청한 옛 나무 아래를 거닐음이 얼마나 더 고상한 표정이라! 여름에는 바다 같은 그 깊고 푸른 그늘 속에 살고 가을에는 마당과 지붕이 온통 그의 낙엽으로 묻혀 보라. 얼마나 풍성한 추수리요! 겨울밤엔 바람 소리, 얼마나 우렁차리요! 최대 풍금의 울림일 것이다. 실낱같은 목숨이나마 그런 큰 나무 밑에 쉬어, 먼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 이태준, 「수목(樹木)」 -

[25051-0123]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 ③ (다)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예찬이 드러난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해 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삶의 무상감이 드러난다.

[25051-0124]

2. (가)의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매미’가 ‘나무등걸’에 오르는 모습을 인간의 행동에 비유하며 독자들에게 친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나무를 오르며 발견했을 법한 것과, 나무를 오르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매미’에게 던지고 있다.
- ④ [D]에서는 ‘매미’가 나무를 오르는 이유에 대한 [C]의 예상과는 다른 이유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 ⑤ [D]에서는 ‘새로운 애벌레’들을 통해 ‘매미’가 우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혀 [A]에서 유발된 호기심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25051-0125]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다른 대상에게 슬픔을 주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누리고 싶은 긍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글쓴이의 거주 공간에서 성장하며,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25051-0126]

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봄’에서는 봄이 객관적인 계절로서가 아닌, 모란이 피어서 질 때까지라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②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서는 모란이 떨어진 순간부터 봄을 여윈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과, ‘오월 어느 날’을 기다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는 모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그 상황에서 유발된 화자의 서운함과 연결된다.
- ④ ‘그뿐’은 모란이 졌기에 더 바랄 것도 없는 화자의 허망함을 강조한다.
- ⑤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지고 다시 피기까지의 기간으로, 화자가 ‘나의 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을 의미한다.

[25051-0127]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보 기&gt;—

시가 주는 감동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제시되는 의미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역설을 통해 일깨우는 새로운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매미 울음이 가진 의미와 그 의미에 담긴 역설을 노래하며 감동과 새로운 인식을 선사한다. (나)는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반복, 변주하면서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에 담긴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 ① (가)는 ‘매미가 ‘음지’에서 ‘여섯 해의 긴 침묵’을 버티는 것이 ‘목청’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② (가)는 ‘시인’, ‘습작기의 원고’라는 표현을 통해 매미 울음이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암매미 떼’와 ‘사랑’, ‘애벌레’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우는 울음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것임을 드러내며 그 의미에 담긴 역설적 의미를 보여 주는군.
- ④ (나)는 ‘설움에 잠’기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보람 서운케 무너’지거나 ‘섭섭해 우’는 것은 미래형으로 진술하며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변주하고 있군.
- ⑤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담아냄과 동시에 모란이 필 때의 기쁨과 질 때의 슬픔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25051-0128]

6.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것은 인간이 베푸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생각한다.
- ② 다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예화로 들며 가족이 누리는 혜택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집 마당에 심긴 나무에 열린 열매를 통해 천의를 따르고자 했던 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 ④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인덕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나무와 연결하고 이를 역사적인 인물을 예시로 들어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 나무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02p / 해설 46p]

(가)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歷史)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地圖)」 -

(나)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 **돌문**이 있습니다. [A]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B]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千年)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C] 길숨한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렵니까.

[D]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E]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F]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千年)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납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25051-0178]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제재의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인격화한 대상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현재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5051-0179]

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긴 것이다.
- ② ㉡은 만나고 싶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그리운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과의 만남을 차단한다.
- ④ ㉡은 ㉠과 달리 만남과 이별의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만나고 싶은 대상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25051-0180]

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열리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 특정한 소재와 화자 자신을 대비하며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C]: 화자의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지속적인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거리감을 드러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깊은 한이 풀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화자는 자신이 기다린 시간만큼 임도 기다릴 것을 제시하면서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25051-0181]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가져온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슬픔과 그리움이다. 보고 싶은 대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슬픔과 대상에 대한 깊은 그리움, 다시 만나고픈 간절한 소망을 자아내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기다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될수록 기다리는 이의 마음은 채워지지 못한 결핍으로 인한 한의 정서가 발현되기도 한다.

- ① (가)의 ‘슬픈 것’의 원관념인 ‘함박눈’이 쌓이는 자연 현상은 인간이 어찌할 바 없는 것인 것처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② (가)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과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심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열릴 수 있는 ‘돌문’ 안에 ‘검푸른 이끼’가 앓은 것은 기다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가 ‘당신의 그리운 얼굴’을 비칠 때까지 ‘영혼’이 되어서라도 기다리겠다는 것은 그리운 이를 다시 만나고픈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에 핀 꽃을 따라 그리운 대상을 찾아 나서겠다는 것은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의 ‘지극한 정성’은 결핍이 충족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것이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30p / 해설 64p]

(가)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

(나)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

[25051-0227]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서두에서는 대상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1연에서는 삶의 터전으로부터 다급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오랑캐의 비극적 운명을 드러내고 있다.
- ③ 2연에서는 구름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과 연결하여 1연의 상황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3연에서는 오랑캐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오랑캐로 불리우는 ‘오랑캐꽃’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⑤ 3연에서는 화자의 행위가 ‘오랑캐꽃’이 처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5051-0228]

2. **그늘 농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화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② 나무가 주는 혜택을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무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며 화자의 연민을 일으키고 있다.
- ④ 나무가 피운 꽃과 호응하며 화자가 가진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 ⑤ 나무가 나누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5051-0229]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물은 창작의 영감을 주는 소재이다. 자연물 중에서 꽃이나 나무는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꽃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인간과 위계가 없는 동등한 존재의 수준을 넘어, 우리네 삶과 나란히 함께 있는 연대의 존재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에서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대한 연대 의식을 자연물에 투사하여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역시 인간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물의 모습에서 인간의 특정 태도를 촉발하거나, 인간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노래하였다. 한편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 가진 통념의 전환을 가져오는 창의적인 인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오랑캐꽃의 모습은 오랑캐꽃을 오랑캐와 관련짓게 함으로써 화자가 오랑캐꽃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오랑캐꽃’에게 ‘목 놓아 울어’ 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 간 존재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자연물에 투사한 것이겠군.
- ③ (나)의 ‘산수유나무는 그늘’이 노랗다는 것은 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소중한 것임을 보여 주는 창의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겠군.
- ④ (나)의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는 표현은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역시 인간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강’을 터전과 분리되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과 (나)에서 ‘마음의 그늘’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물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 것이겠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50p / 해설 78p]

(가)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黃昏)도 저 돌벽 아래 잡초(雜草)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行動)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꺾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니

㉢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다)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탁영대 연못**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갓끈 찢을 줄 그 뉘 알리.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빛을 머금은 구슬\*은 어제인 듯하다마는

봉황 떠난 빈산에 두견만 낮에 운다.

도화동 내린 물이 밤낮없이 복숭아꽃 띄워 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디인가.

**신선** 자취 아득하니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까마는

산이 좋아 갈 길 잊고 기암에 다시 기대

원근의 내와 들판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 꽃 빛깔은 비단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 골바람에 날려오고

산사의 종소리 구름 밖에 들리도다.

이러한 풍경을 명문장가의 붓인들 다 써내기 쉽겠는가.

**눈앞의 풍경**이 흥취를 더하는 듯

**이리저리 거닐며** 짐짓 더디 돌아와서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다 지는도다.

독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뵈는 듯.

갱장에 뚜렷하여\* 애달피 탄식하며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맑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 잊으신 채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시니**

동방의 군자는 이뿐인가 하노라.

더구나 효제를 근본 삼고 충성을 펼쳐 내어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당우성시\*를 이룰까 바라다가

**시대 운수 불행하여** 어진 이를 멀리하니

듣고 보는 사람들, 심산궁곡인들 뉘 아니 슬퍼하리.

**유배 생활 칠 년**에 하늘의 해 못 보시고

문 닫고 성찰하여 도덕만 닦으시니

사불승정\*이라, 공론이 절로 일어

사람마다 도덕을 숭상할 줄 알아서

유배지 사람들도 받은 교화 다 못 잊어

궁벽한 시골 땅에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은 더욱 일러 무엇하리.

- 박인로, 「독락당(獨樂堂)」 -

\* 빛을 머금은 구슬: 덕이 있는 사람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준다는 것을 비유한 말. 이언적의 높은 덕을 의미함.

\* 갱장에 뚜렷하여: 국과 담장에 뚜렷이 보여. 곧 사모함이 지극함을 비유한 말.

\* 당우성시: 요순시절 같은 태평스러운 세상.

\* 사불승정: 사악한 것이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함.

[25051-0262]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보조사의 반복을, (나)는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비판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현실을 초월한 공간을 제시하며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상황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5051-0263]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의인화된 매개체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명시적 청자를 설정하며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청자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제시하며 화자 자신에게서 촉발된 불만을 외부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가진 특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1연과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며 화자의 자괴감을 심화하고 있다.

[25051-0264]

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열대어들이 물속에서도 목마른 역설적 시간이다.
- ② ㉡은 열대어들이 아마존으로 돌아가는 회귀적 시간이다.
- ③ ㉢은 기계들이 질주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회복의 시간이다.
- ④ ㉠과 ㉢은 열대어들이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는 안정의 시간이다.
- ⑤ ㉠과 ㉢은 인공물이 생명력을 얻어 열대어와 어우러지는 조화의 시간이다.

[25051-0265]

4. (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맑은 못을 거닐고 높은 바위에 올라 주변을 완상하며 선현의 덕을 느끼고 있군.
- ② 낮에 우짖는 봉황새와 떠나가는 두견새의 모습을 비교하며 상념에 잠기고 있군.
- ③ 기이하게 생긴 바위에 기대어 바라본 시냇가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군.
- ④ 다양한 빛과 향기가 있는 자연물 속에서 산사의 종소리가 들리는 공간의 분위기를 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군.
- ⑤ 조정에서 배척당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통함을 느끼고 있군.

[25051-0266]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곤 한다. (가)는 이러한 시선을 바탕으로 그 현실에 놓인 자신 혹은 타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나)의 경우 현실이 만들어 낸 문화나 공간이 빚어내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는 ‘활자’와 달리 ‘죽어 있는’ 화자의 ‘영’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억눌려 있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부정적 현실과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세검정 길’과 ‘아스팔트’라는 공간을 ‘아마존강’과 대비하며 물질을 우선시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과 (나)의 ‘색색의 종이꽃’은 모두 인식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육된 교외’와 달리 (나)의 ‘아마존 강변’은 시인의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력이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된 수족관을 보여 준 것이겠군.

[25051-0267]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독락당」은 박인로가 이언적이 공부하던 집인 독락당을 찾아가 그의 뜻을 기리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이언적의 ‘독락’에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운 ‘여민락’이라는 이상 사회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박인로는 독락당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독락의 슬픔을 느꼈을 고인에 공감하며,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유학자로서의 유훈을 후세에까지 우러러 받들 것을 드러낸다. 또한 유학자로서 이상 사회를 꿈꾼 고인의 뜻과 어긋난 세속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 따라야 할 가치를 지켜 낸 이언적의 태도를 높이 받들고 있다.

- ① ‘탁영대’ 앞 ‘연못’은 변함없이 맑지만 ‘속세’는 어지러움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속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찾을 수 있군.
- ② 독락당이 있는 공간을 ‘무릉’이라 칭하며 ‘신선’의 자취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이언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는군.
- ③ ‘눈앞의 풍경’에 취해 ‘이리저리 거닐며’ ‘저녁 해’가 질 때에 돌아오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거닐며 여민락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는 모습은 후세까지 우러러 받들어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시대 운수 불행하여 어진 이를 멀리’함에 따라 ‘유배 생활 칠 년’을 하게 되었던 고인이 ‘선비들의 추앙’을 얻게 된 것은 유학자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군.

\* 확인 사항

- 수능완성 현대시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수능장에서 연계 체감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어서, 「빠른 정답」이 제시되오니, 채점 후, 틀린 문항은 해설지를 가볍게 확인해주세요.

〈수완 평가원화 - 현대시〉 빠른 정답				
가는 길 / 우리가 물이 되어				
1.②	2.③	3.④	4.⑤	
절정 / 새				
1.②	2.①	3.③		
매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 / 수목				
1.④	2.③	3.④	4.②	5.④
6.③				
눈 오는 지도 / 석문				
1.①	2.①	3.②	4.⑤	
오랑캐꽃 / 산수유나무의 농사				
1.⑤	2.②	3.⑤		
사령 / 아마존 수족관 / 독락당				
1.①	2.②	3.①	4.②	5.④
6.③				